

잘못 알고 있는 피임상식

- 최근 응급 피임약의 우리나라 상륙에 따른 논란이 뜨겁다.
이번 호에는 피임에 관련된 잘못된 상식에 대해서 알아본다. -

20세기의 최고 발명품

먹는 피임약이 20세기 최고의 발명품으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최근 응급피임약인 노래보가 수입·시판되면서 우리 성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논란이 뜨겁다. 사후 피임약은 과량의 호르몬이 일시에 투여돼 신체기능 이상을 부르기 쉽다는 게 전문의들의 공통된 견해로 가급적 성폭행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받아 사후피임약을 복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피임상식

우리는 예로부터 성에 관한 논의를 터부시해와서 피임에 대해서는 잘못 알려져 있는 것들도 많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범하기 쉬운 실수에 대해서 몇가지 알아본다.

피임약을 먹으면 살이 찌고 피부가 거칠어지고 또 장기복용하면 불임이나 기형아 출산 가능성이 높다는데...

최근 피임약은 극소량의 호르몬만이 함유되어 체중변화가 거의 없다. 과거 피임약 중 일부는 여드름을 악화시키기도 했지만 최신 피임약은 오히려 여드름을 감소시키기도 한다. 또한 피임약은 복용법만 정확히 지키면 피임효과와 함께 건강상의 잇점을 가지고 있는 피임법으로 불임이나 기형아 출산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피임약의 호르몬 성분은 몸에 축적되지 않고 복용하는 동안만 효과를 나타낸다.

질 밖에서 사정하면 임신걱정을 않아도 된다는데...

가장 널리 알려진 오해 중 하나다. 당연히 질내 사정보다 임신가능성은 적지만 사정 전에 이미 정자가 일부 분비액에 섞여 나오기 때문에 임신될 수도 있다. 그리고 성관계시 남자가 흥분상태이므로 질외사정에 실패하는 경우도 많다.

생리중에 성관계를 하면 임신을 피할 수 있다는데...

생리중에는 피임을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기 쉽지만 잘못된 생각이다. 생리란 증식된 여성내막이 임신이 되지 않아 탈락하는 현상으로 이 기간중 성관계를 가지면 임신확률이 적긴 하지만 100% 안전한 것은 아니다. 특히 생리기간이 긴 사람이 생리가 끝날 무렵 성관계를 가지면 3일 이상 정자가 살아남아 임신이 될 수도 있다.

정관수술을 하면 정력이 감퇴된다는데...

정관수술이란 정관을 묶어 정자가 나오는 길을 막는 피임법이다. 정관수술을 하면 성감이 떨어진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전혀 근거 없는 낭설이다. 하지만 자신의 성적능력 퇴보에 대한 불안감 같은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 성기능이 저하될 수는 있다.

정관수술로 완벽하게 피임이 된다는데...

일부는 정관수술 후에도 피임이 되지 않을 확률이 있다. 정관수술 시술법에 따라 다르지만 단순히 정관을 묶었을 경우 정자가 나올 확률이 5% 정도로 높고 전기시술이나 절제방식의 경우 상대적으로 확률이 낮다.